

## 포스트 鄧小平시대 중국 최고권력엘리트의 실체와 정책전망\*

김 정 기 (충원대학교 행정학과)

본 논문은 등소평 사후 그 권력의 승계자인 강택민체제는 안정적인가? 등소평 사후에도 중국의 정책노선은 등소평의 노선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회답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등소평 사후 최초로 개편된 중국 당·정·군 최고지도자의 성분과 그들간의 역학관계, 〈黨章〉 그리고 향후 시정방침이 되는 총서기의 〈국정보고〉 내용을 14대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 강택민은 중앙 및 법정계열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표석과 군내 실력자인 유화청·양백빙을 타진시키고, 다양한 자파세력을 당·정·군 지도핵심에 포진시킴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이붕(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경제적으로 개혁지향적인 주융기(극무원총리)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등소평 생전의 정책노선-정치적 안정(4항 기본원칙 견지)과 개혁·개방 실무노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 확실시됨을 발견하였다.

### I. 서 언

鄧小平 사후의 중국정치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다. 하나는 등소평 사후 그의 권력승계자인 江澤民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등소평이 제창한 개혁·개방 실무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냐이다(Richard Baum, 1996: 153-175). 즉 강택민정권의 체제안정과 정책방향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등소평 사후 처음으로 개편된 중국의 당·정·군 최고지도부의 구성과 그들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해 보고, 두번째 문제에 대한 회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엘리트들의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15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중공의 〈黨章〉과 최고지도자의 〈국정보고〉를 분석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의 정치변화에 대한 연구에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겠으나(Richard Baum, 1992; Harry Harding, 1994; 서진영(a), 1993: 134-157; 서진영(b), 1993: 9-34), 본 연구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5기 이전의 파위엘리트의 구성 및 성분과 정책노선을 준거로 하여 등소평 사후 1997년 9월과 1998년 3월 처음 개편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지도층의 구성 및 성분과 정책노선을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 등소평 사후의 정책변화를 전망해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의 대상은 중국정치의 최고정책결정그룹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

\* 본 연구는 1997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졌음(1997년 12월 4일 한국정치학회주최 연례학술발표대회와 「국가전략」 4-1에서 중간발표한 바를 최종정리한 논문임).

국 상무위원 및 위원회 성분과 15대 黨章 및 <극정보고>내용이다.

## II. 포스트 鄧小平정권 최고지도층의 구성과 권력의 향방

본 장에서는 등소평 사후 강택민체제의 정치적 위상은 공고한가, 그리고 어떠한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등소평 사후 최초로 선출된 당·정·군 최고지도층의 구성 및 그들간의 역학관계를 등소평의 생전과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중국공산당 지도체제의 구성변화와 권력의 향방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상 대표적인 지도체제는 중앙위원회다. 하지만 중앙위원회는 규모상(위원 193명, 후보위원 151명)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한 기구가 바로 중앙정치국(15기, 위원 22명, 후보위원 2명)이다. 중앙정치국 중에서도 상무위원 몇 사람(15기, 7명)이 당과 12억 인구를 통치하는 최고지도핵심이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와 병렬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 중앙서기처를 두어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당중앙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구성원의 핵심과 국가기구의 수뇌는 인사상의 겹직 매카니즘에 따라 정치국상무위원이 分掌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국상무위원의 구성변화는 중국정치권력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가능자 역할을 한다.

1997년 9월 19일 중공 제15기 전국대표대회 제1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15대1중전회)는 <표 1>과 같이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선임했다(「人民日報」a, 1997; 「文匯報」a, 1997). 이들 중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초점을 맞추어 당지도체제의 구성변화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1인자적 지위인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에 강택민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중공 11대5중전회에서 부활된 총서기직은 1982년 12대에서 당주석제가 폐지됨으로써 당의 최고 지도자적 지위가 되었다. 강택민은 1989년 6·4사태 이후 열린 13대4중전회에서 趙紫陽으로부터 그 직을 승계, 15대에서 그대로 유임되었다.

둘째, 중국공산당 최고권력핵심그룹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 7명 중 5명이 유임되고 하는 위건행(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직)(何頻·高新, 1993: 274-284)을 발탁한데 반해, 2명이 교체되었다. 강택민과 李鵬·朱鎔基·李瑞環·胡錦濤는 유임되었고, 尉健行과 李嵐清은 정치국위원에서 승진되는 한편, 喬石(73세)과 劉華清(81세)이 탈락하였다. 이처럼 상무위원 7명 중 2명이 교체된 데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나, 무엇보다도 연령이 70세 이상이라는 절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보겠다.<sup>1)</sup> 그러나 교석의 경우는 그의 퇴진에 대신해서 교석 맨으로 통하는 위건행(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직)(何頻·高新, 1993: 274-284)을 발탁한데 반해,

1) 왜냐하면 15기 인사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으며, 교석의 탈락 대신 교석 맨으로 통하는 위건행(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을 상무위원으로 승진시킨 점과 親유화청계로 분류되는 張萬年을 비록 정치국 상무위원 보다는 격이 낮지만 서기처 서기로 기용한 점 등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김정계, 1998, 78).

〈표 1〉 중국공산당 제15기 최고지도체제의 구성 변화

	유 일	신 일	탈 락
중앙위원회 총서기	江澤民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江澤民, 李 鵬, 朱鎔基, 李瑞環, 胡錦濤	尉健行, 李嵐清	喬 石, 劉華清
중앙정치국 위원<후보 위원>	丁關根, 田紀雲, 주승기, 강택민, 이 봉, 이남칭, 李鐵映, 이서환, 吳邦國, 호금도, 姜春雲, 錢其琛, 黃 菊△, 위건행, 譚 非.	李長春, 吳官正, 遲浩 田, 張萬年, 羅幹, 賈慶 林, 溫家寶. <후보> 曾慶紅, 吳 儀	고 석, 유화청, 陳希同 ▽, 鄧家華, 楊白次, 譚 紹文(사망) <후보> 은가보(위원 승진), 왕한린
중앙서기처	<서기> 호금도, 위건행, 정판근, 은가보	<서기> 장만년, 나 간, 중경홍	<서기> 汪建新, 오방극 △, 강춘운△
중앙기율검 사위원회	<서기> 위건행 <부서기> 趙慶華	<부서기> 韓杼濱, 何 勇, 周子玉, 夏贊忠, 劉麗英 (여)	<부서기> 侯宗賓, 進作 霖, 三德英, 徐 濤

주 : 1) △프 : 1994년 9월 14대4중전회에서 승진(보임).  
2) ▽프 : 1995년 9월 14대5중전회에서 해임.

군출신은 당초 예상(張萬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지호전 국방부장 중 한 사람을 유화청을 대신해서 상무위원에 기용할 것이라는 당초 소문)을 뒤엎고 한 사람도 정치국 상무위원에 기용하지 않은 것은 군부를 충분히 장악, 더이상 군부에 영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경제판토령의 이남칭(何頻·高新, 1998: 145-155)과 기율검사의 베테랑인 위건행의 기용은 지속적인 경제개혁정책의 추진과 이익의 장악들에 대한 적극적인 책결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보겠다. 결국 새로 선임된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강택민의 지도력에 도전할 만한 인물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김정제, 1998: 81).

셋째, 중앙정치국위원의 경우 역시 14기 이전에 비해 구성상의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안정지향적 개편이었다고 하겠다. 탈락자는 상무위원인 교석·유화청을 포함하여 77세의 楊白次, 71세의 鄧家華 등 4명에 불과하다. 譚紹文은 14대 직후에 사망했으며, 陳希同은 이미 부패의 연루되어 해임(1995년 9월 14대5중전회)되었다. 따라서 양백빙과 추가화의 탈락 역시 노령이 객관적 기준이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탈락자는 성분상으로 친강택민제열이 아닌 점이 주목된다. 반권 신임의 경우, 賈慶林(북경시 서기)·李長春(하남성 서기)·吳官正(산둥성 서기)·譚 非(광둥성 서기)는 지방당위를 대표하는 자들로 비교적 친강택민 혹은 중립적인 인사들이었다(김정제, 1988: 89-90).

넷째, 중앙서기처와 기율검사위원회에도 기본적인 지도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다. 호금도가 서기처의 일상업무를 관장하고, 위건행이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서 그 직을 도수하고 있

다. 호금도의 국가부주석직 겸직과 위건행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기용은 그 지도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장만년의 서기 기용은 군실세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즉 14기 때 한 명도 없었던 중앙서기처 서기에 중앙정치국위원 장만년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겸임케 한 것은 비록 정치국상무위원회에는 못 미치나 중국정치에 군의 영향이 건재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끝으로 교석·유화청과 양백빙·추가화 등의 퇴진으로 당 지도부내에서 강택민이 최고의 연장자가되었다. 이 점은 중국과 같이 경로사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강택민의 권력안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으로 보인다(駱柯稻, 1997: 54).

이상과 같이 등소평 사망 후 처음으로 개편된 중국공산당의 새 지도부는 14기의 강택민을 주축으로 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법령·공안계통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교석의 퇴진과 군부의 세력약화로 강택민의 권력기반은 더욱 공고히 되었다(「聯合早報」 a, 1997). 정치국 상무위원에 군출신은 한 사람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비교적 파벌적 색채가 얕은 경제관료출신인 李嵐清(경제담당부총리)을 승진시킨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는 군대의 정치상의 퇴조와 경제건설이 최우선적 정책과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정세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결단이다(「聯合早報」 a, 1997).

## 2. 국가지도체제의 구성변화와 권력의 항방

등소평 사후 국가지도체제의 개편은 1998년 3월에 소집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루어 졌다. 15기 공산당 대회의 인사에 이어 제9기 전인대의 인사로 포스트 등소평 시대 국가(정부)의 최고지도부가 구성되었다(〈표 2〉 참조). 전인대 회의가 중요한 것은 당 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해도 국가기관에 그에 걸맞은 직위를 갖지 못할 경우, 정책결정상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장화정책의 추진에 따라 국가지도체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제9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단행된 주요 인사 및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주석직의 경우 강택민이 그대로 유임, 전인대의 국가지도체제 인사에서도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다. 부주석에 정치적 중립세력인 榮毅仁 대신 강서열 5위인 호금도가 승진되었다. 따라서 호금도는 차세기의 최고지도자로 더욱 근접해 가고 있다.

둘째,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직에 교석(은건개혁)이 퇴진함과 동시에 전인 총리 이붕(보수)이 선임되었다. 부위원장 19명 중 7명이 유임되고, 12명이 교체되었다. 위원장의 교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상당한 권력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석 상무부위원장직을 친조양계열의 개혁지향적인 전기운(김정계, 1994: 188-19; 何頻·高新, 1993: 26-45)이 그대로 고수하였고, 부위원장직의 교체율 역시 전기(6명 유임) 보다 적게 이루어 짐으로 세력의 균형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본다.

〈표 2〉 중국 국가지도체제의 구성 변화

	유 일	신 일	탈 락
국가주석단	〈주석〉 강택민★	〈부주석〉 호금도★	〈부주석〉 榮毅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전기운 ◆, 帕巴拉格列朗杰, 王光英, 程思遠, 布赫, 鐵木爾達瓦買提, 吳階平	〈위원장〉 이 봉★ 〈부위원장〉 사비◆, 강훈운◆, 추가화, 팡패운, 何魯麗, 周光召, 成克杰, 賈志, 丁石孫, 成思危, 許嘉璐, 蔣正華 〈비서장〉 何椿霖	〈위원장〉 교 석 〈부위원장〉 王漢斌, 侯志福, 陳慕華, 費孝通, 孫起龍, 雷潔瓊, 秦德尊, 李錫銘, 王丙乾, 盧嘉錫, 甘苦, 李流瑤 〈비서장〉 賈志(부주석 승진)
국무원(정부총리, 국무위원)	〈부총리〉 이남청★, 전기침◆, 오방국△◆ 〈국무위원〉 지호전◆, 司馬義艾買提, 나 간◆	〈총리〉 주용기★ 〈부총리〉 온가보◆ 〈국무위원〉 오 의▲ 〈비서장〉 王忠禹	〈총리〉 이 봉★ 〈부총리〉 주용기★, 추가화, 강훈운◆△ 〈국무위원〉 이철영◆, 宋健, 李貴鮮, 陳俊生, 彭森雲 〈비서장〉 나간(국무위원 겸직)◆
사법계통		〈최고인민법원장〉 肖揚 〈최고인민검찰원 겸 검찰장〉 韓杼濱	〈최고인민법원장〉 任建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張思卿

주 : 1) △표 : 1995년 4월, 제8기 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승진.  
2) ★표 : 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 ◆표 : 중앙정치국위원, ▲표 : 동 후보위원.

셋째,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경우, 상무부총리 주용기가 총리로 승진하였으며, 이남청·전기침·오방국이 부총리에 유임되고 온가보가 승진함과 동시에 추가화·강훈운은 탈락하였다. 국무위원의 수 역시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으나, 그 중 3명은 유임되었다. 따라서 국무원의 지도체제에도 큰 변화가 없다. 시장경제의 싹방자이며, 개혁개방의 기수인 주용기의 국무총리 승진은 경제체제개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넷째, 사법계통인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각각 韓杼濱<sup>2)</sup> 前찰도부장

2) 1980년대 상해시 철도국장과 1992년-1997년 까지 철도부장직에 있던 철도관련 간부르 검찰업무에는 큰 외한이다. 오직 한저빈은 상해에 근무할 때의 강택민과의 인연으로 강택민의 선인만으로 검찰장에 기용된 인물로 검찰업무에 대한 지식부족과 낮은 인지도 때문에 전인대에서 가장 저조한 지지를 받았다. 즉 1919명 찬성에 687명 반대, 344명이 기권하여 6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廣州日報』 a, 1998).

과 肖揚<sup>3)</sup> 前사법부장으로 모두 교체되었다. 이는 법정 및 공안체통의 최고실세였던 교석의 퇴진과 택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부장의 경력을 가진 한저빈과 더불어 국가안전부문에 전혀 경험이 없는 許永躍 신임 국가안전부장은 강택민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발탁은 정법, 공안계에 강력한 권력기반을 둔 교석을 견제하기 위한 방략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포스트 등소평시대 국가지도체제는 당의 지드자인 강택민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붕과 국무원총리 주융기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집단지도체제다. 즉 등소평 사후, 교석(전인대 위원장)의 퇴진으로 강택민-교석-이붕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강택민-이붕-주융기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강택민·이붕·주융기가 각각 정부체제내에 자파의 인맥을 안배한 점에서도 나타난다.<sup>4)</sup>

### 3. 군사지도체제의 구성변화와 권력의 향방

1997년 10월 중공 15대1중전회와 1998년 3월 제9기 전인대에서 선출된 당 및 국가 중앙 군사위원회와 군사 지도체제(〈표 3〉)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강택민이 유일되었다. 강택민은 1989년 6·4천안문 사태 이후 열린 1989년 1월 13대5중전회와 1990년 4월 제7기 전인대에서 등소평으로 부터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한 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둘째, 부주석의 경우, 유화청과 張震이 부주석에서 탈락하고, 친유화청계로 분류되는 장만년(4野) 및 강택민과 가까운 지호전(3野)이 1995년 4월 제8기 전인대 제3차회의와 1995년 9월 14대5중전회에서 당과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승진하여 15기에 그대로 유일되었다. 정치국위원이며 동시에 당·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된 두 사람은 모두 산둥성 출신으로 등소평 인맥이지만 그 중 장만년은 전형적인 야전군 출신으로서 유화청계열에 속하며, 국방 부장을 겸하는 지호전은 강택민계열로 알려져 균형을 이루고 있다(Matt Forney, 1997: 24).

셋째, 위원의 경우 장만년과 지호전이 1995년 4월 제8기 전인대 제3차회의와 1995년 9월 14대5중전회에서 국가와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에 승진된 후 그대로 유입됨과 같이 왕극(3野, 총후근부장 겸임)과 왕서렴(前등소평관공청 주임, 총정치부 부주임 겸임) 역시 같은 일자에 위원에 승진되어 그대로 유입되었다. 부전유(1野, 총참모장)와 우영파(4野, 총정치부 주임 겸임)는 유입되었다. 새로 구성된 군사위원의 특징은 지역적으로 강택민을 제외한 6명 전원이 북방 인이며,<sup>5)</sup> 70세 미만(평균 연령이 68세)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군사전

3) 肖揚 중국인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광둥성 인민검찰장과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사법부장을 거친 법률전문가다. 따라서 전인대에서 96.8%의 지지를 얻었다(「廣州日報」 a, 1998).

4) 강택민은 국방외교와 국가안전분야(지호전 국방부장, 唐家璇 외교부장, 허영약 국가안전부장 등)에서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많이 기용함으로써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용을 갖춘 반면, 이붕은 국무원총리시절 국무원의 비서장이었던 나간과 인사부장(宋德福)을 국무원원과 부장에 그대로 유입시켜 국무원내의 자파인맥을 유지하고 있다. 주융기 역시 내각내 각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국무원비서장직에 측근인 王忠禹를 기용하고, 戴相龍 인민은행장을 비롯한 경제부문 주요 인사에 측근을 유입시키거나 기용하였다.

5) 장만년·지호전과 왕서렴은 산둥성, 부전유는 산서성, 우영파는 요령성, 왕극은 안휘성 출신으로 모두 淮河 이북출신이다. 이는 북중국인들이 신체적 조건이나 기질적으로 굳인이 될 소질이 많고(項退結, 1977: 30), 항일전쟁 및 국공전쟁이 주로 북중국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문교육을 받았으며, 일선지휘관(군구사령원)의 경험이 있다(『聯合軍報』b, 1997). 또 계파별로 안배된 점도 특징이다. 이는 계파간의 조화를 통해 특정계파의 득주를 용납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 군경혈이 없는 장택민에게는 어느 특정계파의 군벌장악이야 말도 큰 의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 중국 군사지도체제 구성변화

	유 일	신 일	탈 락
당국가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장택민★ 〈부주석〉 장단년△◆, 지호전△◆ 〈위원〉 傅全有, 于永波 王克△, 王瑞林△		〈부주석〉유화청, 장진
국방부장	지호전◆		
국방과위주임		劉積斌	丁衡高
공안부장		賈春旺	蔣經國
인민해방군 3총부	〈총정치부주임〉우영파	〈총참모장〉 부전유 〈총후군부장〉 왕극	〈총참모장〉장단년◆ 〈총후군부장〉부전유
국방대학교장		那世忠	朱敦法▶
군사과학원장		劉精松	趙南起(조선족)▶
해군사령원	석운생◀		張連忠▶
공군사령원	유순요◀		龔慶明▶
2포병사령원	楊國樑▶		
두경사령원	楊國屏▶		
7대 군구 사령 원	北京 瀋陽 濟南 南京 廣州 成都 蘭州	錢國梁◀ 陳炳德◀ 陶伯鈞◀ 廖錫龍◀ 李新良 양광열 郭伯雄	三戎斌▶, 梁光烈▶ 왕 극▶, 이신량◀ 張大恒▶ 固耀▶ 李希林▶ 李九龍▶ 유정송▶

주 : 1) △표 : 1995년 4월, 제8기 전인대 제3차회의와 1995년 9월 중공 14대5중전회에서 승진.

2) ★표 : 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 ◆표 : 중앙정치국위원.

3) ▶표는 중공 14기초에 임명, ◀표는 14기 중 장택민에 의해 교체임명 된 자임.

넷째, 軍政 지휘체통의 경우 국방부장은 유임되고,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주임과 공안부장이



교체되었다. 劉積斌은 재정부 부부장직에서 승진된 인물이며, 賈春旺은 국가안전부장에서 자리를 옮겼다. 모두 강택민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다.

다섯째, 제2포병 사령원과 무경사령원을 제외한 일선 군사지휘관은 모두 14기 이후 강택민에 의해 교체되거나, 발탁된 자들이다. 대부분이 건국이후에 군에 입대한 제파색이 얽은 신인들이다.

요컨대, 군인사의 경우도 중국인민해방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당과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강택민이 그대로 유임됨으로써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다만 군의 원로인 유화청과 장진의 퇴진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물론 이들이 퇴진한 것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세대교체의 의미가 더 크다. 새로 구성된 군사위원들은 젊고, 풍부한 실전경험과 현대적인 군사이론 및 탁월한 군대지휘능력을 갖춘 자들이다. 따라서 등소평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방현대화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물들이다.

#### 4. 新지도체제와 강택민의 위상

이상 등소평 사후, 처음으로 단행된 당·정·군 지도체제실세의 인사구성의 특징을 보면, 첫째, 등소평 사후(중공 15대와 9기 전인대 이후) 지도체제와 정치권력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겠다. 그것은 강택민이 당·정·군의 최고위직에 그대로 유임되었고, 권력의 최고핵심인 정치국상무위원 7명 중 2명만이 교체된 점 등이 이를 증명해 준다. 강택민의 유임과 더불어 전 총리 이붕의 유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전임), 경제개혁을 진두지휘하던 상무부총리 주용기의 유임(총리로 승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인 이서환의 유임과 중앙서기처의 총괄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호금도가 재기용(국가부주석 승진)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바뀐 것이 있다면, 교석의 퇴진으로 강택민-교석-이붕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강택민-이붕-주용기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과 군세력의 퇴조다. 따라서 포스트 등소평시대를 이끌 중국의 새 지도부는 강택민을 주축으로 이붕(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겸임)의 정치와 주용기(국무원 총리 겸임)의 경제가 이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이는 바로 정치적인 보수와 경제적인 개혁(소위 硬政治, 軟經濟)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신성향으로 보아 '조룡경제(烏龍經濟)'의 후계자이며 중앙집권적 정부관리체제에 훈련된 이붕은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원치 않을 것이며, 시장경제체제의 신봉자인 주용기는 결코 경제개혁의 지연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sup>6)</sup>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아 경제적 개혁 못지 않게, 정치적 안정을 더욱 증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국상무위원 인사에 군출신을 배제한 것은 문민정권의 기반이 공고히 되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강택민은 15대 중공 최고지도부에 자파세력을 끌어 들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갈등과 조정을 전지하면서 당·정·군의 최고위직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등소평 생전인 14기와 비교컨대, 강택민을 핵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치적 측면에서 다소 진보적인 교석이 보수적인 이붕으로 후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온건적인 이붕에서 개혁적인 주용기로 진일보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6) 1991년 3월 등소평이 이붕 총리하에 주용기를 제1부총리로 기용했던 것도 이러한 성향조화의 태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었다. 즉 이붕은 개혁·개방에 있어 온건형 간부이기 때문에 과단성이 있는 주용기를 기용함으로써 이들의 조화를 꾀했던 경험이 있다(김정재, 1994: 172-173).



### Ⅲ. 포스트 鄧小平정권 최고권력엘리트의 사회적 배경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 최고정책엘리트 집단인 15기 중공 중앙정치국위원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그 성분을 14기 이전과 비교함으로써(〈표 4〉 참조) 등소평 사후 정책 및 노선의 변화의 부를 가능해 보고자 한다. 중앙정치국위원의 연령(선임 당시), 출신지역, 교육정도 및 전공·해외경험, 군대경험, 기타 당·정경험, 유입정도 등을 통하여 정치국위원의 성분변화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김정계, 1994; 張希賢, 1993; 田克勤, 1991; 張麗松, 1991; 廖善隆, 1993; 「人民日報」 b, 1997; 「北京日報」 a, 1997; 「文匯報」 b, 1997; 金楨桂, 1994: 170-178).

#### 1. 연령

중앙정치국위원의 평균연령은 63.3세로 14기 62.5세 보다 약간 높아졌다. 그 이유는 비록 70세 이상인 자를 퇴진시키긴 했으나, 유입자가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14기 정치국 위원 증탈락자는 모두 70세 이상(교석 73세, 유화청 81세, 추가화 71세, 양택칭 77세)인 사람이다. 15기 정치국위원 중 군출신(지호전 68, 장만년 69세)을 제외한 선임자 대부분은 50대 및 60대 초반 젊은 간부들로 증원된 반면, 강택민이외는 70세 이상인 유입자는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현대화 정책과 함께 추진해 온 간부의 年輕化 정책은 13기 이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지도층의 준비로도 풀이된다.

#### 2. 출신배경 및 출신지역

중국정치에 있어 출신배경(부모의 직업)과 출신지역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전통적으로 연고우선주의적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출신배경은 혁명배경을 들수 있는데, '간부 4화'(지식화, 연경화, 전문화, 혁명화)의 하나도 바르 혁명화이다. 따라서 중국 정치에 있어 혁명에 직접 참여했거나, 혁명열사의 자제라는 점은 상당한 정치적 기반을 제공한다. 15기 중앙정치국위원 가운데 혁명1세대는 아무도 없고, 그 자제는 강택민(江上青의 양자), 이봉(李碩勳의 자, 주은래·동영초의 양자), 이철영(李維漢의 자)과 후보위원인 중경홍(聶士의 자) 등 4명이다.

둘째, 하방 및 노동개조경험을 들수 있는데, 주용기는 반우파투쟁과 문혁때 2회에 걸쳐 하방된 경력이 있고, 이남청·정판근·강춘운·가경렬·전기철·중경홍 등은 문혁때 지방의 5·7 간부학교에 하방되어 노동개조를 받은 경력이 있다. 그리고 이서현은 순수 노동자(목공) 출신이다.

셋째, 출신지역은 농촌과 도시, 출생 성시(省市)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5기 정치국위원의 출신지역별 특징은 도시지역 출신(45.5%)이 14기(50%)보다 줄어들었고, 강택민의 연고지인 상해중심의 화둥(강소·절강)인맥이 14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강택민, 이봉(원적 사천), 호금도(원적 안휘), 위전행, 이남청, 정판근, 전기철, 황극 등 8명이며, 정치적으로 상해에서 성장한 주용기와 오방국을 포함할 경우 두력 10명이나 된다. 강택민·주용기·오방국은 전직, 황극은 현직 상해시장 및 당위 서기다.7) 역사적으로 상해인맥은 기존의

정치질서에 불만을 품은 최고권력자의 변혁의지에 힘입어 일거에 중앙에 진출하는 성격이 짙다. 강택민의 상해인택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과, 천안문사태를 전후로 하여 호요방과 조자양으로 대포되는 기존 개혁세력의 등요와 이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등소평의 정치구도를 대변하여 중앙무대에 진출한 것이다(서진영c, 1998: 67).

〈 표 4 〉 중공 역대 중앙정치국위원(正)의 성분변화

구 분	위원수 (명)	평균 연령	출신지(명)		교육수준 (대졸,%)	해외경험 (%)	군경험 (%)	유일 비율
			농촌	도시				
7기(1945)	13	48.2	12	1	69.2	69.2	69.2	53.8
8기(1956)	17	58.2	17	-	64.7	70.6	88.2	64.7
9기(1969)	21	62.9	21	-	33.3	38.1	71.4	47.6
10기(1973)	21	63.8	20	1	28.6	33.3	66.7	61.9
11기(1977)	23	65.3	19	4	26.1	30.4	73.9	56.5
12기(1982)	25	71.8	20	5	40.0	29.0	84.0	68.0
13기(1987)	17	64.8	11	6	64.7	23.5	47.1	58.8
14기(1992)	20	62.5	10	10	80.0	40.0	10	30.0
15기(1997)	22	63.3	12	10	81.8	31.8	9.1	68.2

- 주 : 1) 모든 수치는 각 기 1중전회를 기준으로 산출.  
 2) 해외경험은 1년이상 유학 또는 연수자에 한했음.  
 3) 유일율의 경우, 각 기 1중전회이후 중간의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차기 1중전회에서 유일된 자는 유일자로 계산하였음.

### 3. 교육정도 및 전공·해외경험

첫째 대학이상 출신자가 81.8%로 14기 80.8% 보다 향상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엘리트 지식화의 결과다.

둘째 전공의 경우 63.6%가 이공계 대학출신이며, 공정사 등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도 14명으로 전체의 무려 63.6%에 이른다. 특히 상무위원의 경우 경제전문가인 이남청을 제외하고는 6명 전원이 공정사 혹은 동력사 자격증 소지의

테크노크래트다. 이는 14기(각각 80.8%, 50%, 33.3%)와 비교컨데, 지도층 기술관료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후보위원인 증경홍과 오의 역시 공학을 전공한 공정사 출신인 점으로 볼때 절대다수가 테크노크래트 출신이다. 이상은 13기(1987년) 이후부터 현저히 나타난 현상으로 중국지도부가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지도층의 자질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7) 흥미롭게도 모택동이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는 그 동향인 호남성출신이, 린 푼(林彪)가 독재하던 시기(9대)는 그의 출신지인 호북성 출신이 정치권에 가장 많이 입국했고, 강택민이 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시기(14대-15대)는 역시 강택민과 동향인 화둥(상해浙江)인택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인택 증시풍조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정치외 진통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치국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적 대표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도 볼 수 있다(金楨桂, 1994: 172).

입증해 주는 것이다.

셋째 출신대학의 경우 중국 최고의 명문 북경대 출신이 1명도 없는 반면, 청화대학 출신이 5명(주용기, 호금도, 오방국, 왕국, 오관정)이나 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15기 정치국위원이 거의 테크노크래트 출신인 점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청화대는 중국 제1의 이공계 종합대학이고, 북경대는 문과계 종합대학이다. 이밖에도 북경대의 저항적인 교풍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5·4운동의 발원지가 북경대이면서도, 6·4천안문사태의 진원지도 북경대라는 저항적(불의에 항거하는) 전통의 교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5기 정치국위원의 해외경험 장도(81.8%)는 14기(40.0%) 보다 낮아졌으나, 그 숫자(각각 8명과 7명)는 큰 변화가 없다. 15기의 해외경험자는 모두 신중국 성립 이후 중·소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 소련과 동구에서 유학한 자연과학도다. 강택민·이붕·위건행·이남청·전기침은 소련에서, 이철영과 나간은 각각 1950년대 초중열 체코와 동독에서 유학 또는 1년 이상 연수과정을 마쳤다. 특히 강택민·이붕·이철영 등은 각각 저항한 혁명열사의 가족으로延安시대 부터 계획적으로 양성한 후계자들이다. 1950년대 후반 중·소관계 악화 이후 문혁이 종결 될 때 까지 중국은 제3세대 후계자(接班人)들을 주로 국내에서 교육시켰다. 그 결과 15기의 제3세대 지도자들은 청년기에 해외 유학의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15기 정치국위원의 해외경험은 14기에 비해서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 4. 군대경력

중국정치에 있어서 군이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정권 초기에는 長征과 군생활을 통해 닦아진 인맥이 거의 중국의 파벌정치를 형성하였으며, 정치국위원 중 군출신이 지배적이었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2기를 고비로 군출신 및 장정출신의 정치국 진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5기의 경우 군경력자는 지호전과 장만년 2명에 불과하며, 장정 경험자는 1명도 없다. 이는 혁명1세대들의 퇴진과 지속적인 老靑교체의 결과이며, 개혁·개방 이후 문민 기술관료시대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15기의 경우 상무위원 중 군출신이 1명도 없는 것은 군의 정치간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당이 군을 지도한다’는 문민우위체제의 전개를 의미한다. 중국의 정치에 군의 개입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었음을 드러낼 때(송인영, 1995; 이태환, 1996: 63-64). 군세력의 퇴조는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을 보증하는 안시로도 해석되겠다.

#### 5. 기타 당·정·군 경험

군대 경험 이외의 경력별 출신을 보면 22명 중 14명(강택민·주용기·이서환·호금도·전기침·이철영·오방국·라간·강훈운 등은 전직임)이 개혁·개방 이후 주요지역 및 개방지역의 省級 당·정책임자를 거친 사람들(현직 1급 지방 당위서기 5명 포함)로 채워졌다. 신임 7명 중 이장춘·오관정·가경림 3명이 각각 현재 하남성·산둥성·북경시 당위 서기를 겸직하고 있으며, 황국 상해시위 서기, 사비 광둥성 당위 서기는 유일 케이스트 주요 개방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당·정경험이 풍부한 기술관료다.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이남청과 후보위원 으로는 각각 해외경제부문의 베테랑이며, 신임 정치국위원 나간과 은가보는 지방 당·정관료를 거쳐 각각 14기 이후 계속 국무원 비서장과 서기처 서기를 맡고 있는 당·정실무에 밝은 기술관료다.

이는 바로 지방의 실정과 개혁·개방의 경향을 적극 중앙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7. 유임비율

정치국위원의 유임정도는 정책의 계속성과 변화를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15기 정치국위원의 유임비율은 68.2%로 14기 30%보다 훨씬 높다. 그 중 상무위원의 경우 71.4%(14기 57.1%)가 유임되었다. 15기 정치국위원의 경우 유임비율이 역대 어느 때보다 가장 높다. 이는 향후 정책의 변화가 적을 것을 예고한다.

이상 중공 중앙정치국위원 성분분석을 총결해 볼 때, 15기 정치국위원의 성분은 14기와 비교컨대, 연령적으로나 학력 및 전공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역대 정치국 중 유임율이 가장 높은 점으로 보아 등소평 생전의 정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군대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방지역의 당·정경험이 풍부한 기술관료의 대거 기용은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심화가 이루어 질것을 예고한다. 한편 보수파를 대표하는 이붕을 끌어 들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대신 조자양계열의 급진개혁파의 배제 내지 현상유지의 교석의 퇴진은 정치개혁까지 포함한 급진개혁의 차단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 IV. 포스트 등소평 - 강택민 정권의 정책향방

중국정치에 있어 인사는 노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증이라고 볼 때, 이상과 같은 지도체제의 개편은 바로 등소평 사후 강택민정권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의지의 반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과 같은 지도체제의 개편에 앞서 천명한 정책방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중국정책의 방향을 귀납적으로 예증해 보고자 한다. 총서기 강택민은 1997년 9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鄧小平 이론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있는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21세기를 향해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국정보고를 하였고(『人民日報』c, 1997), 이어 동 9월 18일에는 〈中國共產黨章程修正案〉을 통과시켰다(『北京日報』b, 1997). 이러한 당장의 수정안과 총서기의 국정보고가 바로 향후 중국의 장·단기 노선과 정책의 방향이며, 그리고 전술한 인사는 이러한 노선과 정책에 대한 보증이다(김정계, 1994: 9). 黨章의 수정내용 및 국정보고를 통해 향후 중국의 정책방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선과 정책변화

#### 1) 〈黨章〉과 노선

黨章의 변화는 바로 당의 노선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15대의 당장은 '등소평이론'을 당장에 삼입시킨 것 외는 14대 당장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구체적으로 15대 당장에 삼입한 등소평 관련 내용(등소평 이론)은 다음과 같다(『十五大修改後的黨章與原黨章條文對照』, 1997: 7-48).

첫째, 총장에서 14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에다 등소평이론을 첨가하여 중국공산당의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둘째, 총강에서 “제11기3중전회 이래 당은 正反 양 방면의 경험을 총괄하여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를 제11기3중전회 이래 동소평 동지를 주요 선포한 중국공산당은 건국이래의 正反 양 방면의 경험을 총괄하여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로 고쳤다.

셋째, 또 총강에서 동소평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와 당대 중국의 실천과 시대적 특징을 상호 결합시킨 산물이며, 모택동사상의 새로운 역사조건하에서의 계승과 발전이며,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단계이며, 당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며, 중국공산당의 집체적 지혜의 결정으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부단한 전진을 이끄는 지침이라고 규정하였다. 넷째, 제3조 당원의 의무 조항에 모든 당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과 함께 동소평이론을 학습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다섯째, 제31조 2항 당 기층조직의 임무에서 조직은 당원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과 함께 동소평이론을 신중히 학습시킬 것을 명문화 하였다.

여섯째, 34조 1항 당의 각급 지도간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로서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에 대한 이론·정책의 수준을 구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며, 마르크스주의 입장·관점·방법으로 실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를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 동소평이론의 수준을 구비하고, 마르크스주의 입장·관점·방법으로 실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15대 당장은 동소평이 지도한 ‘중국특색있는 사회주의’ 건설을 행동지침으로 삼고, 동소평이론의 핵심인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1개 중심(경제 발전), 2개 기본 점(개혁·개방 ; 사회주의노선·인민민주독재·공산당 지도·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동소평 사후에도 그가 지향하던 노선에는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오히려 동소평 생전 보다 동소평의 이론을 더욱 강화하였다.<sup>8)</sup>

## 2) 국정보고내용과 정책방향

당 지도자가 전당대회에서 행하는 <국정보고>는 바로 당 정권의 향후 정책방향과 시정방침이다. 강택린이 국정보고를 통해 제시한 정책 방향과 국정운영 방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택린은 개혁·개방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혁명이었다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2010년의 GNP를 2000년 대비 2배트 증가시켜 비교적 완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둘째 2021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에는 국민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각중제도를 보다 완비한다. 셋째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 중반에는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江澤民, 1997: 4).

강택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국민경제가 전체적인 질과 효율이 낮으며, 경제구조의 불합리적인 모순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일부 국유기업의 활력 저하, 강과 정부 및 사회가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부정 부패·사치낭비 등조의 만연, 팽배주의의 형식주의 심각성, 비합리적인 수입분배관계, 지역간의 발전격차 심화, 일부 주민의 어둡은 생활,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환경에 대한 貪의 효과 등이 중국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라

8) 15대 당장은 14대에 비크하여 동소평이론 살입어외, 수정된 것은 제12조 “당의 중앙과 지방의 각급 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를 “필요시 소집한다”로 바꾼 것 외는 없다(《中共十五大黨章》第12條).

고 지적했다(江澤民, 1997: 8).

그리고 강택민은 보고를 통하여 세기교체의 회고와 전망, 과거 5년간의 업적, 등소평이론의 역사적 지위와 의의,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노선과 강령, 경제체제개혁과 발전전략, 정치체제개혁과 민주법제 건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 창달과 국방의 현대화, 평화통일정책, 국제정세와 대외정책, 21세기 중국공산당의 진로 등 종합적인 국가정책 방침을 제시하였다(江澤民, 1997).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2년 10월 14대에서 확정된 시정방침<sup>9)</sup>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15대 시정방침 중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극정전환에 걸쳐 등소평이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워 이념적 제한 없이 대담한 개혁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 첫째, 강택민은 극정보고의 제목을 <등소평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21세기를 향해 전면적으로 밀고 나가자>고 함으로써 극정전환에 걸쳐 등소평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등소평 사후에도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정책노선을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 당지도부의 의지라 보겠다.

둘째, 등소평이론의 기치아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워 현재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기초단계에 있으므로 이념적 제한 없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운용되는 대담한 개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좌파(보수파) 및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지지부진했던 소유제 및 국유기업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방침을 천명했다.

## 2. 정책전망

등소평이론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천명한 이상 향후 중국은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의 근본임무는 1개 중심 즉 생산력(경제) 발전이고, 생산력 발전을 위해 이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 체제의 개혁과 정치의 안정(2개 기본점)이 정치의 최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등소평 사후 전개될 중국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겠다.

### 1) 정치면

강택민은 시정보고에서 "경제체제개혁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우리에게 4항 기본원칙(사회주의, 공산당 영도, 인민독재,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 견지)의 전제하에 정치체제개혁을 계속추진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것(江澤民, 1997)이나, 이봉의 정치·주용기의 경제로 대표되는 당·정·군 최고지도층 인사개편으로 보아 등소평의 '경제우경'(軟經濟)과 '정치좌경'(硬政治)이라는 불균형적인 발전전략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소평 사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본질적으로 중국체제내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지식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민주화, 즉 공산당 일당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를 채

9) 14전대에서 확정된 시정방침은 사회주의 ①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경제개혁의 가속화, ②대외개방의 확대와 외국의 자본·자원·기술·관리경험의 이용확대, ③산업구조의 조정과 지방경제의 발전 및 농업의 중시, ④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 및 지식인의 역할강화, ⑤정치체제개혁과 민주법제 발전, ⑥행정체도와 기구의 개혁, ⑦사회주의 정신문면수준의 향상, ⑧인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인구증가 억제, ⑨개혁·개방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의 현대화 등이다(김정계, 정치근, 1997: 412).



택하자는 것 혹은 서구와 같은 완전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 등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생산력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기업(政企不分)과 관료주의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의 전환과 政·企분리, 정부기구의 축소<sup>10)</sup> 및 공무원제도의 개혁 등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계·정차근, 1997: 382-392). 특히 인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풍해신 및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운동 등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민의 분출되는 정치참여 욕구에 대응해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다소 개혁지향적인 이서환이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에 유인됨으로써 큰 문제는 없으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갈이 짙은 이봉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절충하는 정치참여에 재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나, 개혁지향적인 전기운이 그 상무부의원장직에 유인됨으로써 개혁·개방의 탈제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끝으로 군대의 경우 장택민의 <국정보고>(江澤民, 1997: 42-43)와 이봉의 97년인대 1차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1980년대에 100만명의 병력을 감축한 기반위에 우리 군은 향후 3년내 다시 50만명의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하고, 한편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군비강화를 증시해야 한다고 한 점으로 보나, 개편된 군 교위총 인사의 성향 등으로 보아, 군대의 양적 팽창 보다 질적 현대화에 더욱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 2) 경제면

장택민은 국정보고에서 소유제 구조의 조정과 개선,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 분배구조와 방식의 개선, 시장기제의 활성화와 건전한 거시조절체계의 완비, 농업의 기초적 지위의 강화와 경제구조조정과 합리화,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인민의 생활수준의 제고 등을 경제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江澤民, 1997: 21-33)

이상의 정책방향은 14대와 대동소이하나,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워 경제체제의 최대과제인 소유제 및 국유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1992년 14대에서 중공은 소유에 있어 '공유제'만 유지되던 되는 것이지 운용에 있어서 '시장경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하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한다고 하고, 모든 국영기업을 국유(공유)기업으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이제는 국유 자체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소유제 구조조정에 있어 '세가지 유리(생산력 향상에 유리, 능력발전이 유리, 인민생활의 향상에 유리)'에 부합되는 모든 소유제는 사회주의하에 발전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주식제는 공유 또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누가 주주권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강조한 점 등으로 보아 다양한 소유제 경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주유기 총리 승진이나 이남청의 정치국 상무위원 기용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국유기업을 포함한 경제체제 전반의 시장화 개혁과 구조조정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구권 국가에서의 전면적인 단영화 추진과는 달리 중국특색의 소유 절진적이며 단계적인 개혁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중국지도부는 글라스코의 국유기업의 민영(주식제도)화는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불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데 동감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속이거나 규모가 소형이며, 비전략적 산업이면서 수익성이 낮

10) 1998년 3월 제9기 전인대에서 이더 부총리 2명, 국무위원 3명, 국무원 11개 부·위·행·서를 감축하였다(「廣州日報」b, 1998).



은 것일 수록 빨리 민영화 될 것이며, 중앙정부 소속으로 반대인 경우 민영화의 속도가 느릴 것이다.

### 3) 대외관계

등소평의 외교노선은 독립자주의교와 실용주의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강택민이 국정보고에서 등소평의 외교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고, 나아가 등소평이론을 15대 黨章의 행동지침으로 채택한 이상 향후 중국의 외교는 경제건설을 최우선시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이 전개될 것이다. 또 냉전시대 중국의교의 기저를 이루었던 제3세계 외교는 최근 수년간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 들어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활동을 제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국제문제에 대해 대국으로서 당당히 참여하여 지분을 행사하겠다는 전방위 외교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최근 중국의교의 현실이다.

따라서 먼저 외교문제가 경제건설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실현함에 있어 중국이 가장 비중을 두는 나라는 미국이다. 對美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주의식 국제질서 구축에 제동을 걸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미국의 독주를 경계하면서도, 미국의 협력없이 WTO가입 등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과 개혁·개방노선의 유지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내리고 있다. 1997년 10월 강택민의 탕미와 반체제인사인 魏京生의 보석결정 등은 천안문사태 이후 생각돼 온 대미관계를 정상궤도트 올려 놓으려는 중국의교전략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對日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동북아 지역내 정치·군사 대국화를 경계하는 한편, 2040년대 선진국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경제협력 강화가 불가피한 일본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1997년 9월 초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일본 총리의 訪中시 중국지도자들은 미일안보지침에 강력히 반발했으나, 1997년 11월 이봉 총리는 訪日 중 이를 둔제 살지 않고 협력과 신뢰 구축에만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은 경제 최우선의교의 증좌라 보겠다.

한편 지난 5월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訪中시 양국의 정상이 “냉전 후 다극체제를 지지하고 단일국가에 의한 지배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나, 11월 열린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여 양국간에 현안이 되어 온 국경문제 등 장애물을 말끔히 제거하는 등 일련의 외교조치는 미국의 일국패권주의식 행동에 제동을 거는 작짓기라 보겠다.

향후 중국이 등소평노선-실용주의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한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하에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기존정책(對남북한 政經분리 정책)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상과 같이 15대 黨章의 수정 및 국정보고의 전제는 중국의 현 상황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임을 고수하면서 생산력 제고에 전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해야한다는 ‘등소평의 이론’ - 개혁·개방노선에 추호도 흔들림이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책노선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2, 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등소평 사후의 지도부 인사개편은 안정지향적이었으며, 등소평 생전과 비교해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즉 향후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절진적이면서도 큰 폭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반면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인 개혁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 강택민을 권력의 지도핵심으로 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다소 진보적인 교석을 보수적인 이봉(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후퇴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 은건적인 이봉에서 개혁적인 주용기(국무원 총리)로 진일보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예증하는 것이다.

## V. 결 언

본 논문은 덩소평 사후 그 권력의 승계자인 강택민체제는 안정적인가? 덩소평 사후에도 중국의 정책노선은 덩소평의 노선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회답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따라서 먼저 덩소평 사후 최초로 구성된 중국 당·정·군 최고지도자의 성분과 그들간의 역학관계, 〈黨章〉 그리고 향후 시정방침이 되는 강택민 총서기의 〈국정보고〉의 내용을, 14기의 그것을 준거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증공 15大 지도체제를 보면 강택민을 축으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硬政治)이 짙은 이붕과 경제적으로 개혁지향성(軟經濟)이 강한 주용기가 더 받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다. 그동안 강택민체제에 제동을 걸어 왔던 교석과 군부실세인 유화청 및 양력빙을 퇴진케 함으로써 강택민의 지도력에 도전할 만한 인물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며, 강택민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갈등과 조정을 견지하면서 당·정·군의 최고위직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15기 중앙정치국위원의 성분은 14기의 비교할 때 연령적으로나 학력 및 전공 분야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역대 정치국위원 중 유임율이 가장 높은 점으로 보아 덩소평 사후에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군대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방지역의 당·정정형이 등극한 기술관료의 대거 기용은 개혁·개방의 가속적인 심화가 이루어 질것을 예고한다. 한편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이붕을 끌어 들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대신 조자양파의 배제 및 지현상유지와 교석의 퇴진은 정치개혁까지 포함한 급진개혁의 차단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증공 15기 黨章의 〈수정안〉 및 강택민의 〈국정보고〉 내용을 14기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첫째 ‘덩소평이론’을 지도사상 및 행동지침으로 당장에 살일한 것 의는 변화된 것이 없다. 〈국정보고〉 내용 역시 덩소평이론을 지도사상으로 받들고 11대8중전회 이후 견지해 온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해 증극특색있는 사회주의경제의 건설을 위해 증극기업을 포함한 경제체제 전반의 시장화 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을 천명한 것 의는 14기의 틀을 벗어 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은 21세기 초반 역시 정치개혁을 피투고 일당독재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은 현재와 같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참 고 문 헌

- 김정재, (1994).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평민사.  
 金楨桂, (1994). 現 中國 最高指導層의 實體와 政策展望. 『中國研究』, 2-1.  
 김정재·정차근(공저), (1997). 『중국정치론』, 평민사.  
 김정재, (1998). 증공15기 최고지도층의 사회적 배경과 정책전망. 『국가전략』, 4(1), 세종연구소.  
 서진영a, (1998). 中國의 改革政治와 新權威主義論. 『中國研究』 1(4).  
 서진영b, (1998). 중국적사회주의 미래는 무엇인가. 『계간사상』, 가을.  
 徐鎮英c, (1998). 中國政治에서 上海인력의 역할: 王洪文에서 江澤民까지. 『中國研究』 1(1).  
 송인영, (1995). 『중국의 정치와 군』, 한울아카데미.  
 이태환, (1996). 개혁을 둘러싼 증극지도부의 갈등과 정치변동 전망. 김동성 등 (공저), 『중국의 개혁과 정치변화』, 세종연구소.

- 이홍표. (1996). *동소평 이후 중국의 정치변화*. 김동성 등(공저). 『중국의 개혁과 정치변화』. 세종연구소.
- 『十五大修改後的黨章與原黨章條文對照』. (1997). 北京: 中國東方出版社.
- 田克勤 主編. (1991). 『中國共產黨七十年』. 吉林文史出版社.
- 江澤民. (1997).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 北京: 人民出版社.
- 何頻·高新. (1993). 『中共新權貴』. 香港: 當代月刊.
- 項退結. (1997). 『中國民族性研究』.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張希賢 等. (1993). 『中國向何處去? 中國共產黨歷次全國代表大會動態分析』.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 駱柯稻. (1997). 石落江更平. 『九十年代』. 1997(10).
- 蔡開松 主編. (1991). 『二十世紀中國名人辭典』. 遼寧人民出版社.
- 廖蓋隆 主編. (1993). 『現代中國政界要人傳略大全』.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 『人民日報』 a. (1997). 9. 20.
- 『人民日報』 b. (1997). 9. 20.
- 『人民日報』 c. (1997). 9. 13.
- 『文匯報』 a (1997). 9. 20.
- 『文匯報』 b. (1997). 9. 20.
- 『北京日報』 a. (1997). 9. 20.
- 『北京日報』 b. (1997). 9. 19.
- 『廣州日報』 a. (1998). 3. 18.
- 『廣州日報』 a. (1998). 3. 19.
- 『聯合早報』 a. (1997). 9. 30.
- 『聯合早報』 b. (1997). 9. 21.
- Baum, Richard. (1992). "Political Stability in Post-Deng China: Problems and Prospects." *Asian Survey*. 32(6).
- Baum, Richard. (1996). "China after Deng : Ten Scenarios in Search of Reality." *The China Quarterly*. 145..
- Forney, Matt. (1997). "New Ord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2.
- Harding, Harry. (1994). "On the Four Great Relationships : The Prospects four China." *Survival*. 36(2).

**金楨柱:** 대만국립정치대학 정치연구소에서 정치학박사 학위(한중 양국 공무원 행정행태 비교연구, 1986)를 취득하고, 북경대학 경제관리계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행정, 관료제도 및 중국정치 등이며, 주요 저서로 <중국의 최고지도층>, <중국의 대외경제법>,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엘리트>,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국정치론>(공저) 등이 있다.